

기 획 안

제 목	[MV] Normalism	프로덕션	평범한 사람들
주 제	특별함을 지나온 평범함의 소중함을.		
러닝타임	3분 13초		
기획의도 (곡 해석)	<p>이번 곡은 반복되는 삶 속에서 평범한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한다. 현재 반복되는 일상은 과거 우리가 꿈꾸던 삶이 아닐까? 과거 자신의 모습을 통해 현재의 평범함이 이전의 나에게겐 특별함이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현재의 소중함을 전하고자 한다.</p>		
등장인물	<p>간 따 빼 야 (男) 20대 후반 집과 회사만을 다니는 일상에 지친 공무원 어린 시절 취직만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그는 마침내 공무원이 된다. 설렘과 열정이 가득했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점차 지루함을 느낀다. 그러나 지금의 순간을 위해 노력하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는 지금 순간을 즐긴다.</p>		
작가 의도	<p>-현실과 깡따빼야의 상상력이 더해진 이야기 진행 사실적인 현실모사가 아닌 이상적인 표현을 통해 일상의 재미를 더하고자 한다.</p> <p>-삶을 대하는 태도를 다양한 걸음으로 표현 흥을 주체할 수 없는: 트램폴린(점프) / 감흥 없이 시간의 몸을 맡긴: 전동휠</p> <p>-매시간 같은 일이 진행되는 시간의 굴레 자신에 의지보다 규칙적인 시간 아래에 행동하게 된 현대인의 삶을 극적으로 묘사</p> <p>-flashback을 통해 현재 평범함이 과거엔 특별함이었다는 메시지 전달 공무원 고시생의 간절함은 입사와 함께 설렘에서,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루함이 된다. 적응의 동물이자 망각의 동물인 인간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말하고자 한다.</p>		
구 성	<p>현재 시간의 굴레에서 진행되는 일상 오늘도 어김없이 혼이 나는 깡따빼야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고 과거를 떠올린다.</p> <p>대과거 고시생 시절 시험에 떨어진 깡따빼야는 처량하게 울었다. 슬픔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소망하던 공무원이 되고 난 뒤 설렘을 가지고 첫 출근을 한다.</p> <p>과거 사회는 쉽지 않았다.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 속에서 깡따빼야는 지쳤다. 지난날을 돌아보다 깡따빼야는 계속된 좌절에 지친 것이지만 직업에 대한 열정이나 사랑일 식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p> <p>현재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의 삶이 특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일상에 소중함을 느낀다. 그리고는 현재를 즐기게 된 깡따빼야 동료들도 깡따빼야의 영향을 받아 현재를 즐기게 된다.</p>		